# 제9강 불교사상사 II

(1교시) J_stJo01_031001_01

**◎ 10사의 정법 인정과 5사의 해석**

상좌부와 대좌부가 갈라서게 된 계기: ① 10사(열 가지 계율문제)의 정법 인정 여부, ② 아라한의 성격에 관한 5사의 해석

붓다는 계율을 좀더 구체적으로 실증적으로 제정 = 법의 구체적 성격을 말해줌.

5사에서는 아라한의 전지적인 능력, 욕망과 고통의 여부에 대해 묻는 것이 있다. 당시 아라한에 관해 여러 논쟁이 있는데 이와 같은 것들은 그 자체의 사실보다는 다른 의미를 끌어들이는 과정으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 "길에서 붓다를 만나면 붓다를 죽여라"**

"길에서 붓다를 만나면 붓다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라" 라는 경구(殺佛殺祖)의 두 가지의 의미:

1. 초율법주의적 측면. 깨달음이나 궁극의 목표를 위해서 윤리적인 문제 등의 미묘한 부분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극단적인 뜻이다.

2. 내가 부처이므로 다른 부처란 가짜, 맹목적인 대상에 불과하다는 뜻. 이는 곧 자신을 현혹시키는 요소를 버리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현대 사회에서의 체득 방법**

체득의 세 가지 방법: **현량, 비량, 성언량**

**현량:**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 아는 것.

**비량:** 언어나 text 등을 통해 추론적인 인식을 통해서 아는 것.

**성언량:** 깨달은 이의 말을 통해 아는 것.

불교에서 가장 선호하는 방법은 **현량**이다.

책이라는 것은 나 자신을 알아내기 위한 도구일 수 있다. 글이나 text를 통해서 내용에 담긴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비량이지만, 오히려 그 내용을 통해 나 자신의 내면에 있는 구체적인 모습들을 들여다 볼 수 있다. 이는 결국 언어를 매개로 한 또 다른 수행일 수 있다.

(2교시)J_stJo01_031001_02

**◎ 대승불교의 배경**

역사에서의 필연적 결과로 사회에 새롭게 반응한 불교.

불교는 유일신도 없고 열려있어서 문화에 맞춰서 쉽게 변한다. 대승 불교 역시 불교가 해당 지역에 적응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종교이상의 변화

아라한이 되고자 함에서 보살이 되고자 함으로 바뀐 것. 그렇다면 보살이란 누구인가? 보통 붓다가 깨닫기 이전 즉, 많은 윤회의 과정과 깨닫기 직전의 상태를 보살이라고 부른다. 붓다가 윤회를 거듭할 동안 수기(깨우침에 대한 기별)를 받게 된다. 이는 곧 깨달음이 예정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보살이란 **깨달음이 예정된 사람**이라 할 수 있다.

대승불교의 재구성

보살 ■ 깨달음을 **추구하는** 존재

■ 부처가 되고자 하는 바이다.

더 나아가 대승 불교는 보살의 개념을 둘로 나누었다.

**■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자 : 범부 보살**

**■ 모두의 깨달음을 위해 나의 깨달음을 미루는 자 : 관세음보살**

보살이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깨닫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즉, 보살이 되고자 함이 있어야 하고 이를 불교에서는 **발보리심**이라 말한다. 수행 중에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게 되더라도 계속적으로 깨우치고자 마음을 먹고 노력을 한다면 **언젠가는 실패가 없는 일정한 지점을 지나게 되는데 이를 8地라고 한다.** 8地 보살들은 이러한 지점을 넘은 보살이라 할 수 있다.

불신관(佛身觀)의 변화

붓다의 사리를 모셔놓은 유적을 보면 그림에 붓다는 등장하지 않는다. 대신, 상징물들이 등장한다. 깨달음 부분에서는 **보리수**가 등장하고, 설법을 하는 부분에서는 **법륜**이 등장한다.

붓다 사망 시 제자들의 "교단의 지도자는 어떻게 합니까?"라는 질문에 붓다는 "너 자신과 나의 가르침을 등불로 삼으라."고 답한다. 즉, 세속적인 것 없이 그냥 떠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신을 이어 이미 죽어버린 스승을 새긴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여긴다. 오직 그의 가르침만이 남았을 뿐이다.

이에 대승 불교에서는 붓다가 몸이 셋이었다고 말한다.

- 색신(色身): 일반적인 육체적인 몸
- 보신(報身): 원할 때 나타나는 보살의 몸
- 법신(法身): 우주적인 몸

<참고자료-학생 프로토콜>

(1)

제9강 불교 사상사 II

03학번 철학과 L 학생

-L 학형 프로토콜에 덧붙여서.

상좌부와 대좌부로 갈라서게 된 10사의 정법인정과 5사의 해석에 대한 언급을 하셨다.

BC 5C 붓다는 법에 관해서 현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 예를 보면 붓다의 제자가 여자와 말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붓다는 여자와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계율을 만들었다. 붓다의 제자가 방에서 여자와 이야기를 하게 되자 붓다는 방에서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계율을 만들었고, 음담패설을 하자 음담패설을 하면 안 된다는 계율을 만들었다. 이는 법의 구체적 성격을 말해주는 것으로서 일반적인 것은 경에 써있다. 이렇게 붓다는 계율을 좀더 구체적으로 실증적으로 제정해 나갔다.

10사가 문제가 되는 것은 붓다가 죽은 후, 제자들이 멀리 퍼지면서 다른 사회적 조건들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붓다와 제자들이 활동하던 곳은 작은 농업마을이었다. 하지만 제자들이 퍼져간 곳에는 상공업이 발달한 도시도 있었다. 그곳에서는 돈을 받아 식량을 구하여야하는데, 승려는 돈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계율이 있었고, 이런 문제로 인해 대좌부와 상좌부로 나뉘게 된 것이다.
5사에서는 아라한이 누군 지에 대한 문제가 언급돼있는데, 아라한은 처음 보는 사람의 이름을 알 수 있냐 없냐? 에 관련된 논의가 있다. 이는 전지적인 능력에 대해 묻는 것인데 당시 자이나교에서는 깨달은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안다, 즉 환하게 안다고 하였다. 제자들이 붓다에게 물으니 붓다는 "나는 내가 알고 싶을 때 알고자 하는 걸 안다" 고 말하였다. 이는 인식론적인 것으로 불교에서의 지식, 앎의 성립은 감각기관과 대상이 부딪히는 연기적인 현상조건에 의해 성립하기 때문이다. 또한 아라한은 몽정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논쟁도 있었다. 불교경전에 쓰인 대로라면 아라한은 감각적 욕망이 사라진 사람으로 몽정이 없어야한다. 이러한 논쟁은 붓다가 죽은 후 아라한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아라한은 깨달은 순간 소리를 악~지르는지의 여부도 논쟁이 되었는데 이것은 그 자체의 사실보다는 다른 것의 의미를 끌어들이게는 중요하다.

**-L 학형의 질문에 대한 답변**

중국 선불교 전통의 정점에 섰던 임제선사가 "붓다를 만나면 붓다를 죽이고 조사(祖師)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라"라고 말한 경구로서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첫째는 반율법주의로 깨달음을 위해서 하는 극단적인 행동이다. 두 번째는 내가 부처인데 다른 사람이 부처라면 가짜다 는 것으로 자신을 현혹시키는 요소를 제거하라는 의미이다. 깨달음의 충고인지, 실제 반응에 대한 것인지는 각자의 판단에 맡긴다.

**-C 학형 질문에 대한 답변**

체득은 무엇을 알았다. 안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면 삶의 무상함 혹은 계절의 변화가 나에게 미치는 경험들이 내 삶에 체화 되지는 않는다. 나와 자연이

자연의 변화 자체가 체화 되는 그런 경험이 현대사회에서는 부족하다. 체득을 하는 데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직접경험에 의한 현량, 추론적인 인식을 통한 비량, 깨달은 사람의 말을 통한 성언량이 있다. 현량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깨달음의 지식을 현량 적 지식이라고 한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정보를 얻는다는 것에서는 비량이면서도, 나 자신을 읽어내는 도구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언어가 매개체 일뿐, 체화될 수 도 있지 않을까.

-수업 들어가기

대승불교는 보살의 사상, 개인적 구원보다는 사회의 구원을 중요시 여기는 것으로 복잡하게 말하기 이전에 역사에서의 필연적 결과로 사회에 새롭게 반응한 불교라 할 수 있다. 원래 불교는 동일한 문화권에서 동질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당시 인도는 다른 사회와 확연히 구분되는 출가사회였다. 출가자 사회와 제가자 사회의 접촉은 있었지만 이상은 다른 인도의 독특한 구조였다.

석가모니가 태어났을 때 주변의 예언자들을 초청하였는데 모든 예언자들이 국왕이 되면 세계를 통일하고 행복을 가져다주는 전륜성왕이 되고 출가하면 붓다가 되리라고 말하였다. 하지만 한 예언자만이 울고 있었는데 그 이유를 물으니 반드시 붓다가 될 것이며, 그 깨달음을 듣기 전에 먼저 죽을 것 같아 운다고 하였다. 이는 종교적 권력(power)과 세속에 개입할 수 있는 힘에 대한 이상이 겹쳐있는데 인도사회의 출가자 와 제가자의 다른 이상을 보여준다. 또한 이는 두 가지(왕과 구원자)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런 불교가 다른 문화와 접촉하면서 충돌 후 변화가 생긴다. 불교는 유일신도 없고 열려있어서 문화에 맞춰서 쉽게 변한다. 예를 들면 베트남 불교와 한국의 불교는 각자의 문화에 따라 바뀌었기 때문에 상당히 다르다.

초기불교에서 대승불교로의 변화과정에서 중요한 변화가 세 가지가 있으니, 첫 번째는 종교이상의 변화로 아라한이 되는 것에서 보살이 되는 것으로 바뀐

다. 두 번째는 부처의 개념이 변화하는데 즉 불신관의 변화이다. 세 번째는 법개념의 변화이다.

**-보살개념의 변화**

보살의 어원은 산스크리트어로 Bodhisattva이다. 불교전통에 따르면 붓다의 삶 547생 중 어느 한생에서 붓다가 될 것이라는 수기를 받는다. Bodhisattva는 깨달음(Bodhis)과 존재(Sattva)의 합성어이다. 그는 깨달은 존재, 즉 붓다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며 장차 붓다가 될 사람이다. 후의 대승불교에서는 깨달음을 추구하는 자로 새롭게 의미규정을 한다. 이는 모범적인 삶을 살며 언젠가는 깨닫겠다는 의미와 깨달음을 계속 추구해 나가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보살은 종교적으로 좋은 본보기가 되니까, 자신의 깨달음을 추구하기 이전에 다른 사람의 깨달음을 돕겠다는 것이다. 즉 깨달음을 연기하는 것이다. 관세음보살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붓다가아니고 보살인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이번 삶은 대충 살고 다음 삶에 깨닫자는 의미는 아니다. 이는 깨달음의 어느 단계에까지 가서 멈춘 후 돕는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8지 이상의 보살은 기독교에서의 천사의 개념과 비슷하다. 보통 사람들을 보살이라는 것은 범부보살로 출가자와 재가자의 의미가 무의미하다. 그것은 붓다의 전생의 한 여정이 보살이므로 재가자를 포함하는 대승불교의 특징이다. "내가 보살이다" 라면 깨달음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는 의미와 붓다의 전생인 보살로 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결국 두 의미는 통한다. 그렇다면 보살은 어찌 될 수 있는 것일까. 내가 보살이 되고 싶으면 보살이 되는 것이다. 즉 발보리심 (=발심) 으로 마음을 먹는 것이다.

발심과 마지막은 차별이 없지만
이런 두 마음에 앞 마음이 어렵네
자기 제도는 못했으나 먼저 남을 건지나니
그러므로 초발심에 나는 경례하노라. <무량수경종요>

초발심의 마음과 깨달은 후의 마음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앞마음과 뒷마음은 차별이 없다. 그러나 초발심이 없었던들 어떻게 부처가 있을 수 있겠는가. 이렇듯 초발심이 중요하다. 계율수행에 있어서도 보리심을 버리지 않으면 비록 계를 어겼다고 하더라도 잃은 것은 아니라 하였고, 염불수행에 있어서도 정토에 왕생하기 위해서는 보리심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렇듯 보리심은 모든 수행의 근본이자 성불과 왕생극락의 씨앗이며, 공덕장이다

사람이 변하는 과정에서는 실패하고 다시 결심하는 반복을 끊임없이 하게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결국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일정한 스테이지(8지)를 정해서 그 이상이 되면 실패하지 않는 불퇴전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

**-불심관의 변화**

아쇼카왕 시절에는 불상이 표현되지 않는 시기였다. 그림에서조차 붓다를 형상화하지 않았었다. 붓다의 모습이 등장할 자리에 여러 상징물을 대신 그림으로 형상화하였는데 깨달음을 얻을 때의 붓다의 모습은 보리수가 대신하고 최초로 제자들에게 설법을 할 때는 가르침의 상징인 법륜을 그리는 것이다. 붓다가 죽을 때 지도자가 없었는데 붓다는 가르침을 등불로 삼고 깨달아서 붓다가 되라는 말을 남겼다. 이때의 사람들은 역사적인 붓다는 이미 없고 붓다의 가르침만 남았다고 생각을 해서 붓다를 형상화하지 않고 상징이 등장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는 대승불교에 의해서 바뀌었다.

대승불교에서는 붓다는 세 가지 몸이 있다고 했으니 이를 삼신사상이 라고 하며 핵심적인 불심관이다. 첫 번째는 형태가 있는 몸으로 죽고 가버린 붓다이고 두 번째는 보신으로 간절히 염불을 하거나 명상할 때 나타나는 붓다이다. 세 번째는 법신으로 영혼의 상징이며 비인격적이며 우주전체를 말한다. 이 삼신은 하나가 되어 마음으로 가는데 일심 (One mind)이다. 이때의 일은 하나로 귀일되는 세계이다. 삼신관은 기독교에서의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와도 유사한 개념이다.

**-질문-**

책을 읽다보니 개에게도 불성이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써있습니다. 논의에 대한 설명이 이해가 안 되구요. 업으로 인해 동물로 태어났다면 동물의 공덕은 어찌 쌓이는 것입니까? 그리고 동물로 태어나면 붓다의 가르침을 받을 수 없다는데 개에게도 불성이 있다고 책에서 읽었지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개도 성불할 수 있다는 뜻일까요? 그리고 염주를 하고 진언을 외우는 (예:옴마니반메훔 )행위는 초기불교에서부터 있었습니까? 아니면 대승불교에서 보살에게 바라는 행위 때문에 생긴 것입니까? 그리고 일반 불교신자들에게 성불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은 모두가 부처이다 를 전제로 하는 말입니까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만 그런 건가요? 또한 발보리심이라 하여 마음을 먹는 게 중요하다하셨는데 그 밑바탕엔 붓다의 진리에 대한 믿음이전제하는 것은 종교적인 입장에서의 강요인 듯싶습니다. 또한 불교의 사상에 동감은 하지만 믿음이 전제 되지 못하면 깨닫지 못한다고 하였는데 그것은 마치 기독교에서 신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것과 같은 이치 아닙니까. 종교의 폐쇄성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저번에 여자가 해탈을 하기 위해서는 남자로 성이 필연적으로 바뀌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당시 여자에 대한 비하적인 편견 때문에 연유된 것인가요? 지금의 승가 생활을 보아도 비구니는 큰스님이 되기 힘든 것 같은데 이것은 불교 내 에서의 남녀차별이 이론적으로 있는 것인지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불교의 가르침을 알리기보다는 종교내의 권력에 더 얽매여 있는 것 같은데요. 대승불교가 사회의 변화에 따라 바뀌었듯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변화의 흐름이 있는지요?

(2)

제9강 불교사상사 II

03학번 철학과 L학생

# 지난 프로토콜의 질문

## 1. L 학형의 질문

1) **"길에서 붓다를 만나면 붓다를 죽여라"** 라는 경구는 **殺佛殺祖** 라는 말에서 비롯 된 것으로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① 반 율법 주의적 측면으로서 깨달음이나 궁극의 목표를 위해서 윤리적인 문제 등의 미묘한 부분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말은 당시의 시대 상황과 관련이 있다. 755~763년에 당나라에서는 안녹산과 사사명이 주동이 되어 일어난 일명, 안사의 난이 전개 되고 있었다. 이로 인해 불교 교단은 회창의 파불사건 등 많은 시련을 겪게 된다. 이에 의현은 **殺佛殺祖** 라는 파격적인 법어를 설파하게 된다.

② 자신의 안에 불성이 내제하므로 다른 부처란 맹목적인 대상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이는 곧 집착을 버리라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2) 경험이 없어도 깨달을 수가 있다. 중요한 것은 깨닫고자 하는 의지라 할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대승 불교의 경우 비구니가 깨닫기 위해서는 성 전환(Gender Change) 가 필수적이라 주장한다. 이와 같은 깨닫기 위한 자격 요건들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문제이다.

## 2. C 학형의 질문

인간은 주변에서 많은 경험을 하게 된다. 삶의 무상함, 계절의 변화 등은 직접적인 것이다. 하지만 이를 체화하지는 못한다. 체득이란 단어는 안다는 것을 뜻한다. 불교에서는 체득에 있어서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한다. **현량**, **비량**, **성언량**이 그것이다.

**현량**-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 아는 것.

**비량**- 언어나 text 등으로 통해서 아는 것.

**성언량**- 깨달은 이의 말을 통해 아는 것.

책이라는 것은 나 자신을 알아내기 위한 도구 일 수 있다. 글이나 text를 통해서 내용에 담긴 지식을 습득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오히려 그 내용을 통해 나 자신의 내면에 있는 구체적인 모습들을 들여다 볼 수 있다. 이는 결국 또 다른 수행일 수 있다.

불교에서 가장 선호하는 방법은 **현량**이다.

## 대승 불교

### 1) 배경

사회의 혼란이 계속 되면서 구원에 대한 것이 화제가 되었다. 이로 인해 대승 불교는 이에 대한 반응 이라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물질적 특성까지 변화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소승 불교는 지역적으로 인도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인더스 강 유역을 중심으로 한 인도는 사회 내에 공통성이 존재 하였으므로 쉽게 공유가 되었다. 특히 이 사회 내에서는 **출가 사회**라는 것이 존재 하였다. 불교가 들어올 당시에 사회는 **제가(諸家) 사회**와 **출가(出家) 사회**로 이분법적인 모습을 보였다. 출가 사회는 전혀 다른 이상을 가지고 수행을 하지만 물질적인 측면에서 서로 원조를 하는 인도만의 독특한 사회 형태 이다. 이러한 사회 형태는 인더스 강 유역을 중심으로 분포해 있었고, 이러한 공통점을 가진 지역에서는 큰 영향 없이 불교가 받아들여지게 된다.
한 예화를 보면, 석가의 아버지 티피카가 주위의 현자들을 불러 아들의 관상을 보게 하였다. 이에 모든 이들이 좋은 관상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 중 한 예언자가 울면서 아뢰기를 이 아이는 왕위에 앉으면 전 세계를 통일 하고 안정케 하는 전륜성왕이 될 것이요, 출가를 하게 되면 인류를 구원 할 구원자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이어 다른 예언자가 울기 시작했다. 왕이 이유를 묻자, 이 아이는 붓다가 될 것인데, 이 분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죽게 되어서 슬퍼서 운다고 아뢰었다. 이는 단순한 예화가 아니다.
기독교의 경우를 살펴보자. 기독교는 종교 자체 내의 신성한 힘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성역적 힘과 더불어 교리를 세속에 전파하고 관리하는 세속적인 힘도 갖추고 있다. 중세 보여준 카톨릭의 권세란 암흑시대라는 이름을 붙일 만큼 막강한 것이었다. 이에 비해 불교는 이 둘이 나뉘어져 있다. 예화에서도 왕이 되거나 구원자가 되거나 둘 중 하나만이 선택할 수 있다. 그 중에 붓다는 구원자가 되었다. 그렇다면 세속적인 전륜성왕의 힘은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세속과 성역이 분리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처럼 불교는 기독교와는 달리 Dogmatic한 종교가 아니다. 따라서 주위로 쉽게 퍼질 수 있다. 율법을 강요하지 않으므로 주위에 쉽게 받아들여지게 되고, 주위 특성에 따라 변

화하기기 쉽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현 불교는 지역적으로 상당히 다른 색깔을 가지게 되었다. 한 예로 우리나라의 불교는 샤머니즘 적인 요소가 섞여 있는데, 이는 토속 신앙과의 융합으로 생긴 것이다.
대승 불교 역시, 불교가 해당 지역에 적응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2) 중요 요소**

대승 불교의 변화에서 주목 해 보아야 할 요소들이 있다.

**1. 종교적 이상의 변화**
**2. 法의 변화**
**3. 부처에 대한 불신관의 변화(What is Buddha?)**

1) 종교적 이상의 변화
대승 불교에서 종교적 이상의 변화는 아라한이 되고자 함에서, 보살이 되고자 함으로 바뀐 것이다. 그렇다면 보살이란 누구인가? 이는 대승 불교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의미 개념만을 새롭게 한 것이다. 보통 붓다가 깨닫기 이전 즉, 많은 윤회의 과정과 깨닫기 직전의 상태를 보살이라고 부른다. 붓다가 윤회를 거듭할 동안 수기(깨우침에 대한 기별)를 받게 된다. 이는 곧 깨달음이 예정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보살이란 깨달음이 예정된 사람이라 할 수 있다.
이를 대승 불교에서는 다음과 같이 재구성 한다.
**보살**
■ 깨달음을 추구하는 존재
■ 부처가 되고자 하는 바이다.
더 나아가 대승 불교는 보살의 개념을 둘로 나누었다.
**■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자**
**■ 모두의 깨달음을 위해 나의 깨달음을 미루는 자**

■의 경우는 깨달음을 추구하는 범인을 이야기 한다. 그래서 이를 **범부 보살**이라고 부른다.

■의 경우는 「관세음보살」이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서유기’를 보게 되면, 삼장 법사 일행이 서역으로 향하는 여행에서「관세음보살」의 도움을 받게 되는 장면을 종종 보게 된다.「관세음보살」불제자들이 힘든 상황에 처하거나, 간절한 기도를 할 때 나타난다. 이는 곧 다른 보살들과 함께 깨우침을 얻을 때 까지 자신의 깨우침을 미루는 것이다. 기독교의 「천사」같은 개념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모든 보살이 이러한 것은 아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범부 보살이 이러한 역할을 맡을 수는 없는 것이다. 대승 불교는 이러한 보살 들을 8地이상의 보살이라 말한다.

Q) 가만히 있는 범인이 보살인가?

A) 스스로 깨닫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즉, 보살이 되고자 함이 있어야 하고 이를 불교에서는 **발보리심**이라 말한다. 하지만 마음을 먹어도 수행 중에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게 된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깨우치고자 마음을 먹고 노력을 한다면 언젠가는 실패가 없는 일정한 지점을 지나게 되는데 이를 8地라고 한다. 8地 보살들은 이러한 지점을 넘은 보살이라 할 수 있다.

2) 法의 변화

3) 불신관(佛身觀)의 변화

붓다의 사리를 모셔놓은 유적을 보면 붓다의 일생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이 있다. 그러나 그 그림에 붓다는 등장하지 않는다. 대신, 상징물들이 등장한다. 이는 죽은 붓다에 대한 의미를 알려 주는 것이다. 깨달음 부분에서는 **보리수**가 등장하고, 설법을 하는 부분에서는 **법륜**이 등장한다.

붓다가 사망 시에 제자들이 「교단의 지도자는 어떻게 합니까?」라는 질문을 한다. 그 질문에 붓다는 너, 자신과 가르침을 등불로 삼으라고 답한다. 즉, 세속적인 것 없이 그냥 떠난 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신을 이어, 이미 죽어버린 스승을 새긴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여긴다. 오직 그의 가르침만이 남았을 뿐이라고 한다.

이에 대승 불교에서는 붓다가 몸이 셋 이었다고 말한다.

1. 색신(色身): 일반적인 육체적인 몸
2. 보신(報身): 원할 때 나타나는 보살의 몸
3. 법신(法身): 우주적인 몸

이 중 법신을 중시한다. 대승 불교에서 법신은 우주 전체를 뜻하며, 이는 곧 질서를 뜻한다고 주장한다. 이 셋이 하나가 되면 이는 곧 일심이 된다고 주장하다. 이러한 주장은 기독교의 Trinity와 같다고 할 수 있다.

## 질 문

중국의 도가 사상을 보게 되면, 무위(無爲)를 주장 하였습니다. 이는 불교의 가르침과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떠한 유사점이나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불교가 중국에 들어와 정착을 할 때 도교가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도 궁금합니다.